

##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증거와 초청

###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11:1)

예수님은 10장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앞서 보냈던 동네들을 차례로 찾아가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11:2-3)

당시에 세례 요한은 해룻에 의해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감옥에 갇힌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보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초립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건설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때까지 자신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았고 로마정부의 압제를 무너뜨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빨리 일을 시작하시지요” 하면서 재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11:4-6)

이 말씀은 요한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기보다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요한은 14장에서 그때의 일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요 14:10-11).

예수님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 메시아 되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일이야말로 합당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4-5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소경이 볼 수 있게 되고 앉은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문둥병이 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는 것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예언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세레 요한에게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왕국을 세우시지도 않고 로마정부의 압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음으로 해서, 즉 물리적, 가시적, 세속적 왕국을 건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는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11:7-11)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지위가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특권은 구약시대를 능가합니다.

우리는 가끔 ‘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러한 관계는 얼마나 멋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과 갖는 교제는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가치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suffers violence, 폭력으로 탈취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the violent take it by force,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KJV)”(11:12)

세레 요한은 감옥에 갇혀 곧 목베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제로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11:13-14)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세레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17장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였으며 나이가 많으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또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인용하셔서 세레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관심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두기 쉽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나 하는 문제와 같이 본 가지에서 벗어난 지엽적 사건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11:15)

###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초청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출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11: 16-19)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책망받은 갈릴리 바다 주변의 도시들은 오늘날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명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장소였다고 생각해왔지만 고고학자들은 최근에 벳새다의 터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웃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11:21-23)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버나움과 그 주변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곳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가장 많이 행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지역을 저주하셨습니다. 음부, 곧 지옥에 던져지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11:24)

왜 그렇겠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이 받게 될 심판은 더 큼니다. 그 사람의 받은 은혜의 분량이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라신과 벳새다와 가버나움의 회개치 않음과 영접지 않음을 인하여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11:25)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소박하며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드러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11:26)

이 얼마나 감사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적인 지혜나 학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11:27)

기도 후에 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며 아들과 그 아들이 알려준 자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알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자의적 숭배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11 :28)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수고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관련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초청이며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 깊고도 아름다운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처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의 불안과 초조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로 인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소에게 씌우는 기구입니다. 이 말씀은 ‘네 인생의 고삐를 나에게 다오. 내가 계획한 대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위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약 30여 년을 봉사한 후에 그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현재도 여전히 분발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고삐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으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버지를 알게 되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배우면 너희들은 아버지의 참된 성품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며 너희에게 크고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세밀히 너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즉 너희들의 삶의 세부적인 모든 영역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자기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진 짐 때문에 삶을 혼란 속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멍에가 아니라 스스로의 짐을 지고 힘들어 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11:30)

사람의 짐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2세 때 그 부분을 처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자신을 찾던 부모님께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하여야 할 일, 사명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짐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이면에 깔려 있는 가장 큰 욕망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 보면 가장 큰 욕망은 물질적인 영역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안락하게 살기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욕망은 명예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존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나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짜릿한 흥분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도 충분히 돈을 벌어서 즐겁고 재미있는 삶을 즐기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말을 고대하며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늘 계획하며 지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짐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면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돈을 가지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좋고 멋진 것들을 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위한 삶, 즉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보면 언젠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바뀔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라고 탄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때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만이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10장에서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의 짐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더 쉽고 가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도무지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만물이 지음받은 목적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즐거움을 위해 있고 (KJV-역주)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며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산다면, 즉 더 가벼운 짐을 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온전해져서 다윗의 말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